

7/31/16

설교 제목: 바벨탑 사건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창세기 11:1-9

- (창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절관주** 행 17:26
-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절관주** 고전 14:23

본문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초기의 장구한 원 역사가 막을 내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속사 전개를 위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대 홍수로 죄를 범한 인간들을 다 쓸어 버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남기신 후 그들에게 주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창 9: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그런데 창세기 1 장부터 본문의 바벨탑 사건까지를 보면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며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유토피아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 아담을 당신과 함께 거기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로 인해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 후 인간의 삶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으로 빠졌습니다.

당신이 지으시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인간이 세상에서 이렇게 헤매다 죽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절대로 당신이 지으신 사랑하는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벌을 받는 그 시간에도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주시하시고 감독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한량없는, 다함이 없는, 끊이지 않는 사랑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대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은 지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구해 주시고 그 후손들로 새롭게 인류를 세우십니다.

이런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들은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온 죄성으로 인해 다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노아 대 홍수를 겪고도 정신을 못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범죄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인류가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인간의 범죄를 통해 인류를 흠으시는 징계를 내리셨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인간은 흩어져 온 땅에 충만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소망없음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는 대 과업을 시행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대 홍수 후에 인류는 노아의 자손인 셈 함 야벳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다른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하며 함께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비옥한 땅 시날 평지에 거하게 됩니다.

(창 11: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창 11: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시날 평지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오늘날 이라크 동부 알 힐라 지역을 가르킵니다.

기름진 땅 시날 평지에서 배부르고 등 따습자 겨우 의기투합해 생각해 낸 것이 우리 다시는 대 홍수 때와 같이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성읍과 탑을 쌓아 하늘까지 올라 가려고 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올라 가서 꿈에도 그리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요?

하늘에 올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요?

(창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다시는 흠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읍과 탑을 하늘까지 쌓으려 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땅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곳입니다.

(시 115:16) 하늘은 여호와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고대 사회에서 하늘은 곧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대 홍수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번성케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은 벽돌로 성읍과 탑을 쌓았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만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시 96:2)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시 100:4)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온지면에 흠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자신들을 흠어버리지 못하도록 돌돌 뭉쳐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의 법을 만들어 그들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무시한 처사였고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인본주의를 앞세워 하나님보다 인간을 중시하고 mammon주의 사상에 젖어 돈과 물질에 온 마음과 정신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과 명예를 숭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보다는 우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복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보다는 자기 자신과 가족의 유익만을 구합니다.

(창 11: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돌 대신 사용했고 역청을 진흙을 대신해서 썼습니다.

전에는 돌과 진흙을 썼었는데 이제는 흙을 단단하게 뭉쳐 불에 구워 만든 벽돌을 사용했고 또  
역청, 아스팔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기술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림도 없는 생각입니다.

인간의 기술이 제 아무리 발전한다고 어찌 인간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나 지식, 과학적 기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 하나님이 없는 과학 기술, 하나님이 없는 최첨단 산업이 바로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세계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는 큰 지진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사람들은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대지진과 쓰나미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후쿠시마에 대지진과 쓰나미가 나자 원자력 발전기의 냉각 시스템 안전 장치들이 다 고장이  
났습니다.

핵반응은 계속되는데 용광로처럼 뜨거워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 시스템 안전 장치들이 고장이  
나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 바다 물을 끌어다가 냉각수를 대신해 들어 부어야 하고 원자로를  
식히고 흘러 나온 방사선으로 오염된 물은 후쿠시마 일대를 불모지로 만들었습니다.

원전 앞 바다는 죽음의 바다로 변했으며 나아가서 태평양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원자기에서 흘러 나와 계속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쌓아 놓은 바벨인 기술적인 교만이 우리의 운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시려고 하늘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고자 하나님이 내려 오셨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인간들이 하늘에 닿게 건설한다고 세우고 있는 성읍과 탑이 하나님이 내려 오셔야만 보실 수 있을 만큼 너무 보잘것 없고 낮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머리를 굴려 온갖 기술을 사용해 하늘에 닿게 성읍과 탑을 세우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소롭기 짝이 없을 뿐입니다.

(창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이 하는 짓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배권이 약화되어 큰일이 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가소로운 짓거리를 하는 인간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 일을 저질러 자멸할 것을 우려하셨던 것입니다.

(창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창 11:8)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창 11: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흠으셨더라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럿이라서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인간들을 지면에 흠으셔서 성읍을 쌓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바벨론 사건에 이어 노아의 아들 중 셈의 족보가 기록됩니다.

셈의 계보를 통한 하나님의 인류 구속 의도를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창 11: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창 11: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2) 아르박삿은 삼십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창 11: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창 11: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창 11: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창 11: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창 11: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창 11: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창 11: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 11: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드디어 셈의 족보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 데라의 족보가 펼쳐지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이 등장합니다.

인간들의 계속되고 반복되는 범죄와 타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축복이 셈의 후손인 아브람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창 11: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 11: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창 11:30)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 11: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창 11:32) 데라는 나이가 이백오 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머물던 하란에서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소망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브람을 통해 인류 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하필 노아의 자손 중 셈의 후손 아브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브람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 구속 사역의 길을 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구속 사역에 동역자가 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는 택함 받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아무 공로 없음에도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충실히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동역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벨론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들을 마음 속에 새겨

1.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2. 우리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데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혼돈되었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흠어졌던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